



주)특허와비즈니스
대표 김세영

★ 대한민국 외교안보대상,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 ★ 010 9880 7783

발명, 인증 분야 저서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

본 책의 내용은 저자가 20여년동안 기술인증, 발명, 특허분쟁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 겪은 경험과 실전을 기반으로 하여 쓴 내용입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는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1년에 수십조의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고 있다. 발명으로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우리는 왜 페이스북 저커버그와 같은 창업부자가 없을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업부자가 없을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발명가들이 있다. 기업에서도 수많은 혁신적 발명들을 한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 발명경진대회도 있다.

기업에서는 수시로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혁신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직무발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발명 창업부자가 많지 않을까. 왜 국내기업들은 천문학적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이 책을 통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발명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명을 통하여 개인이 창업부자가 되기 위한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어떤 발명으로 경영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제난 극복의 돌파구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신과 창조의 결과물은 발명입니다. 개인이 발명 비즈니스로 창업 부자가 되고, 기업이 성공하는 발명 TIP 을 Ⅱ편에서 설명 드립니다.

한편, Ⅰ 편에서는 발명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통하여 발명의 구미를 당겨봅니다. 마지막 Ⅲ 편에서는 흔히들 접하는 지식재산 관련 질의응답사례들입니다. 책꽂이에 보관하시면서 의문점이 생길 때 참조가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이 발명, 인증으로 창업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invention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

기업인, 직장인에게는 발명 비즈니스, 혁신능력향상/학생들에게는 창의력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발명가들이 있다. 기업에서도 수많은 혁신적 발명들을 한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 발명경진대회도 있다. 기업에서는 수시로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혁신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직무발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김세영 지음

“4차산업시대 필독서”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Professional Narrative

Marquis Who's Who Honors Se Young Kim with Inclusion in Who's Who in the World.

Mr. Kim has found much succes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Patent & Business Consulting

SONGPA-GU, SEOUL, SOUTH KOREA, April 16, 2020 — Marquis Who's Who, the world's premier publisher of biographical profiles, is proud to honor Se Young Kim with inclusion in Who's Who in the World. An accomplished listee, Mr. Kim celebrates many years' experience in his professional network, and has been noted for achievements, leadership qualities, and the credentials and successes he has accrued in his field. As in all Marquis Who's Who biographical volumes, individuals profiled are selected on the basis of current reference value. Factors such as position, noteworthy accomplishments, visibility, and prominence in a field are all taken into account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방송 출연

2019년 10월 'TMI 북카페' 출연 (MC : 임지효 아나운서)



- 저서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 출간을 계기로 출연
- 20년간 기업에서 발명, 인증, 특허분쟁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관련 칼럼을 연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겪은 경험과 실전을 기반으로 책을 저술하였음
- 특허출원 관련 노하우와 5대 기술인증, 아이디어의 사업화 과정 관련하여 설명

2014년 7월 MTN '비즈정보쇼' 출연



- 2008년 한국 최초의 특허분쟁컨설팅회사 설립
- 100건이상의 특허분쟁 성공적 참여 및 핵심 이슈제시
- 고도기술인증(신기술인증,중기청 성능인증EPC, 녹색기술인증,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신제품인증)과 특허의 결합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전략

전문 특강 (중소벤처부 울산경제진흥원 주관 행사 특강)



전문 특강 (대학 강의 : 교양과목 특강)



**창업과 발명 특강
특허와비즈니스대표**

일요경제시사신문

기획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의 신의 한 수였다

6.25전쟁과 한미상호방위 조약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탕크 1대도, 비행기 한 대도 없는 상태였다. 해방 후 일제에 수탈되어 망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했을 터이다. 전쟁 발발 후 낙동강까지 후퇴하여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맥아더가 주도한 '단대한' 인천상륙작전으로 위기를 모면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어려울

게 처해졌다. 이때를 뒤집던 참가에서는 전쟁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다. 수만 명의 미군 전사자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북한을 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민, 이승만 대통령, 또 하나의 미국인이 있었다. 바로 맥아더였다. 맥아더는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싶었다고 한다. 민주에 원칙을 두하라는 중공군의 행적을 알아내고 싶어 했다. 이승만도 북한을 계속하여 통일하고 싶어 했다.



▲김세영

결과를 합혹했다. 군인들만 수십만이 사망했다. 최근 한미동맹이 다소 소원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사할도 있었다. 다행이 최근 일대의 위치를 찾아 가는 것은 다들스런 일이라고 본다. 예치선 라인에 미국의 군사력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낭만적 사회주의는 경계해야 전쟁은 방심할 때 발발한다

대한민국 국민, 이승만 대통령, 또 하나의 미국인이 있었다. 바로 맥아더였다. 맥아더는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싶었다고 한다. 민주에 원칙을 두하라는 중공군의 행적을 알아내고 싶어 했다. 이승만도 북한을 계속하여 통일하고 싶어 했다.

결과를 합혹했다. 군인들만 수십만이 사망했다. 최근 한미동맹이 다소 소원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사할도 있었다. 다행이 최근 일대의 위치를 찾아 가는 것은 다들스런 일이라고 본다. 예치선 라인에 미국의 군사력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이 없으면 언제든 또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불안정하다. 최근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는 편향은 것 아니냐는



NEWS AND VIEWS OF KOREA
내외통신 NEWS
www.nwtnews.co.kr

HOME > 피플 > 기획특집 > 포토

새로운 시장 개척 '특허와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 (베스트잇컴퍼니) 특허인증슬루션으로 한번에 정밀타격

8 이미성 기자 | 0 승인 2015.02.05 14:43 | 댓글 0



특허와 비즈니스
Patent & Business Consulting

(내외통신= 이미성기자) 국내 연간 특허 출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특허를 통해 실제로 로열티를 받는 기업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국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를 기업 홍보로만 이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보니 특허 수를 늘리기 위한 특허 출원이 남발하고 있고 기업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특허 시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 '특허와 비즈니스'의 김세영 대표를 본지는 이달의 '베스트 잇 컴퍼니'로 선정하였다.

(기획 편집위원)

보도자료 - 헤럴드경제, 뉴스메이커



≡ 전체 **종합NEWS** 정치/국제 사회/이슈 경제/금융 과학/IT 교육/보건

HOME > 종합NEWS

인간의 발명, 신(神) 프로메테우스의 불(火)을 통제하다

김세영 칼럼 | 승인 2018.03.07 | 댓글 0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선물했다. 그리고 약3만 전년 호모사피엔스는 불사용법을 습득하였다. 이후, 불사용법을 발견한 인류는 불을 이용하여 발명을 하였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불을 이용한 발명이다. 실린더 내의 석유 착화시(着火時) 순간 폭발력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불은 인류에게 고마운 존재이다. 또한, 익혀진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식사시간이 줄어들었고, 불에 익은 부드러운 음식을 씹으면서 사각턱도 가름해지기 시작했다. 풍부한 단백질 섭취로 뇌의 용량도 증가했다. 이처럼 불과 인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반면, 불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NewsMaker.

the monthly magazine for ceo

RSS > 시작

커버스토리 시사·이슈 정치·사회 경제·CEO 칼처·라이프 피플·칼럼 IT과학

최종편집 : 2023.9.31 목 11:36 전체기사 | 기사쓰기 | 자유게시판 | 기사제보 | 구독신청 | 광고안내 | 회사소개

홈 > 뉴스 > 경제·CEO

뒤로가기 >

메일보내기 | 오류신고 | 프린트 | + | -

국내 유일 지식재산 토탈 인증 서비스로 기술혁신 선도하다

2017년 06월 06일 (화) 21:14:22

윤담 기자 | hyd@newsmaker.or.kr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한다.

윤담 기자 hyd@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은 특정인이 특허발명에 관하여 갖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배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허권은 타인에게 매도되거나 담보물이 될 수 있고 사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조, 사용, 판매에 대해 독점권을 가진다. 이러한 특허권은 기업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이디어 창출부터 신제품, 신기술개발과 조달등록까지 원스톱 지원

특허는 기술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창조경영 개발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허를 활용한 기업 운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특허와 비즈니스는 기업의 실질적인 특허 관리 전략화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특허, 인증, 분쟁, 마케팅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대응을 통해 기업의 매출과 연계한 마케팅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연구 개발 및 특허전략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사 토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열한 특허분쟁 속에서 기업의 가치 지키다”

▲ 송재호 이사 | © 입력 2014.07.01 15:39 | © 수정 2014.07.01 15:40 | 댓글 0

수년간 전 세계에서 점예한 특허권 대립을 펼쳐온 삼성과 애플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였다. 두 기업이 화해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특허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김세영 대표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특허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쓰그자 특허와 비즈니스를 설립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국제지식분쟁이슈보고서의 집계에 따르면 국제특허분쟁이 전년 대비 79%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기업들은 특허를 출원하면서 그 특허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특허분쟁컨설팅 전문회사 ‘특허와 비즈니스’가 특허분쟁 속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허전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현대 사회에서 특허분쟁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치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2006년 47건에 불과했던 해외 특허분쟁 건수는 2009년 106건으로 급증했을 만큼 분쟁이 글로벌화 되고 규모가 대형화되고

특허와 비즈니스 김세영 대표, 산업계 특허지식경영 선두 주자

| 국내외 특허침해소송관련 특허분석조사 서비스 제공하는 NO.1 특허전문업체

☞ 대한뉴스 | © 승인 2015.01.23 16:33 | 댓글 0

[대한뉴스-권태홍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특허괴물’이라고 알려진 NPE(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과도한 지재산 남용 행위를 법으로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허괴물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할당에 사들인 후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특허괴물들이 제기하는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이 많다. 이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연평균 33%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특허소송의 62%를 특허괴물들이 제기하는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를 꿈꾸는 중소기업들이 ‘특허 분쟁’으로 인해 달장의 앞날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실어주며 시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특허와 비즈니스의 김세영 대표다.



조달우수제품 등 기술인증 중소, 중견기업의 버팀목 역할한다

2021년 07월 04일 (일) 00:38:02

윤담 기자 | hyd@newsmaker.or.kr

(주)특허와비즈니스는 국내의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인증은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녹색인증, 신제품인증 등 특허를 기반으로 한 인증으로서,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윤담 기자 hyd@

기술인증의 다양한 혜택을 보면, 공공기관에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조달우수제품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판매 제품을 올려서 공공기관에서 구매담당자가 쉽게 온라인 쇼핑하듯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기술인증 취득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보면, 우선, 특허권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의 기초인 발명이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발명이 제품으로 잘 만들어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발명과, 인증, 비즈니스의 토탈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발명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기술인증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

최근에 NET 신기술인증을 취득한 회사 중 매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슈] <이슈 포커스> 美 테세라, 국내기업 상대 ITC 특허 소송 이렇게 대처하라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7-11-20 19:31

조회 : 9,336



배심원들 설득 전략...시각적 이해 자료 일반인들 설득 필요

증인심문서 '예, 아니오' 등 간결 답과 상대방 변호사 전략에 주의
소송비용 '엄청'...재정 감안한 로펌·변호사 중 '경험 변호사' 선입

발명 히스토리 자체개발 증거들 확보는 고의침해 주장 항변 유효

미국 테세라는 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미국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및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미국무역위원회로서, 관세법 337조상의 조사를 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차단해 버릴 수도 있다. 수입이 금지 되는 것이다.

보도자료 – 이코노미조선, 뉴스메이커

ECONOMY Chosun

BUSINESS > BUSINESS

BIZ INSIDE | 특허비즈니스 ‘돈 되네’

장시형 기자

88호 2012.02.06 10:40

🔍 🔗 📌 📄

그동안 방어적 수단으로만 여겨지던 특허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허를 갖고 상품을 만들어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 자체를 거래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

지적재산거래소 · 특허 전문기업 등장...

기업들 라이선싱 사업도 적극 추진



특허분쟁이 글로벌화·대형화되면서 특허 비즈니스가 새로운 먹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특허출원건수는 2010년 17만건에서 지난해 17만9600건으로 증가했다. 외국기업들의 한국 내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비중은 20%를 웃돈다.

NewsMaker.

the monthly magazine for ceo

RSS 🔔 시작표

커버스토리 | 시사·이슈 | 정치·사회 | 경제·CEO | 컬처·라이프 | 피플·칼럼 | IT과학

최종편집 : 2023.8.31 목 11:36 전체기사 | 기사쓰기 | 자유게시판 | 기사제보 | 구독신청 | 광고안내 | 회사소개

홈 > 뉴스 > 경제·CEO

뒤로가기 >

📧 메일보내기 📄 오프라인 🖨️ 프린트 📌 추가 📄 가

지식재산 토탈인증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다

2017년 01월 03일 (화) 21:66:08

윤담 기자 📧 hyd@newsmaker.or.kr

특허란 개인 또는 기업이 고안해 낸 고유의 지적재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타인이 침해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런 특허는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담 기자 hyd@

특허등록은 아이디어를 제품화 또는 기술화시킨 유·무형의 지적재산을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작업이다. 특허는 기술 및 제품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활용할 수 있기에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 특허 관리 전략화에 대한 컨설팅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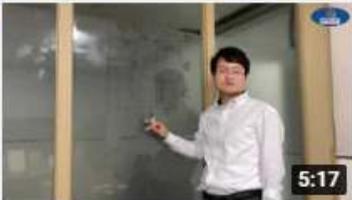
특허출원 및 등록 과정은 복잡하고, 용어도 난해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개발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특허출원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거나 의뢰를 맡기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특허와비즈니스는 기업의 실질적인 특허 관리 전략화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김세영 특허와비즈니스 대표는 “특허, 인증, 분쟁, 마케팅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대응을 통해 기업의 매출과 연계한 마케팅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각종 연구개발 및 특허전략 등 지식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고객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수준을



발명+기술인증 무료강좌 YouTube 채널 '김세영TV'



- 나라장터 조달등록, 특허개발 및 특허분쟁, 성능인증/우수제품/녹색인증/NET/NEP 등 각종 기술인증에 관한 강의 제공
- 아이디어의 사업화, 공공기관 납품 등에 관한 알짜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접할 수 있게 함

 <p>9:36</p> <p>나라장터 기초강의(학교장터, 벤처나라, 혁신장터, 나라장...</p> <p>조회수 85회 · 1개월 전</p>	 <p>11:05</p> <p>돈되는 조달특허개발 방법: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등록, ...</p> <p>조회수 289회 · 5개월 전</p>	 <p>10:36</p> <p>발명특허 기술매매 거래 이전 활용 방안, 발명특허로 사업...</p> <p>조회수 106회 · 6개월 전</p>	 <p>8:21</p> <p>신기술인증/신제품인증 비교 강의, 신제품인증, NET/ NE...</p> <p>조회수 352회 · 6개월 전</p>	 <p>8:06</p> <p>조달우수제품 공공기관 전문 강사 특강, 주)특허와비즈니...</p> <p>조회수 272회 · 6개월 전</p>	 <p>8:39</p> <p>녹색인증, 녹색기술인증의 기본적인 심사 절차와, 환경마...</p> <p>조회수 632회 · 1년 전</p>
 <p>4:46</p> <p>4대기술인증의 차이점과 공통점: 조달우수제품, 성능인...</p> <p>조회수 713회 · 1년 전</p>	 <p>5:17</p> <p>특허소송, 특허분쟁, 특허무효 심판, 특허침해소송과 특허...</p> <p>조회수 260회 · 1년 전</p>	 <p>14:04</p> <p>책소개, 발명의 시작과 끝은 비즈니스, 사업에 성공하는 ...</p> <p>조회수 47회 · 1년 전</p>	 <p>7:45</p> <p>중기청 성능인증, 조달청 조달 우수제품의 차이점 강의</p> <p>조회수 1천회 · 1년 전</p>	 <p>13:20</p> <p>나라장터조달등록, 입찰자격 등록, 조달청물품등록, 조달...</p> <p>조회수 2.7천회 · 1년 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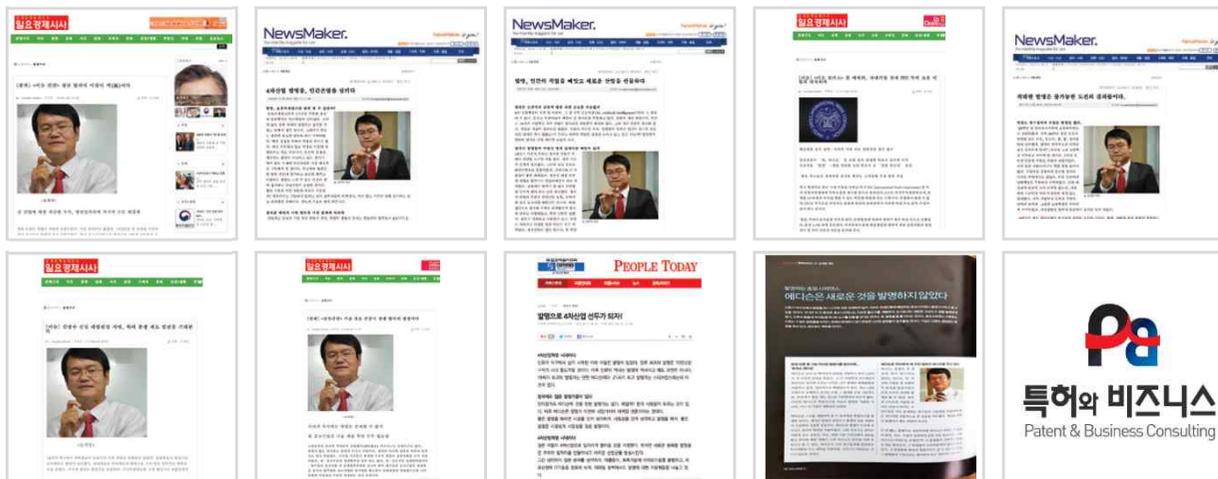
수십 여개 언론보도, 전문 칼럼 자료

언론 보도



- 특허분쟁 전문가로 시작하여, 기술인증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자로서 언론에 꾸준히 보도되었음

칼럼 보도



- 헤럴드뉴스, 조선,
- 일요경제시사 등 언론에 발명과 인문학을 접목시킨 칼럼 다수 연재



